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3호 [루게 제24821호] 주제104 (2015)년 2월 12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8건설국의 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8건설국의 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김용수동지, 리문곤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건설자들의 가슴은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8건설국의 건설자들은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력사를 창조해가시며 그 앞장에 자기들을 내세워주시고 위훈의 창조자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부강조국건설에 적극이바지할 불타는 애국충정의 마음을 안고 영웅적투쟁을 벌림으로써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운 건설자들에



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건설구상을 실현하는 길에 헌신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8건설국의 건설자들은 선군시대의 영웅들이고 우리 당의 보배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

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 동 구 호

—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즈음하여 —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 혁명의 새시대를 빛내어나가는 장엄한 진군길에서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20성상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어 조국해방을 이룩하시고 당창건위업을 실현하신것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었다.

주체 34(1945)년의 뜻깊은 8월 15일과 10월 10일이 있어 우리 인민은 식민지망국노의 저주로운 멍에를 벗어던지고 자기 운명을 이끌어줄 참다운 항도적력량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때로부터 당의 령도 밑에 끝없이 번영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주체조선의 력사가 시작되게 되었다.

우리 당과 조국의 70년 력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밑에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여온 위대한 승리의 력사, 빛나는 계승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는 미제를 물리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혁혁한 승리를 이룩하고 백두의 혁명정신과 필승의 기상이 세대와 세기를 이어 더 높이 나래치게 한 근본원천이었으며 두차례의 복구건설과 두 단계의 사회혁명, 전대미문의 조국수호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영웅적위훈과 끊임없는 기적을어나오게 한 결정적요인이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모시였기에 우리 당은 장장 70년간 사소한 로선상 착오나 탈선도 없이 혁명과 건설을 백승에로 이끌어온 강력한 정치적합모부,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빛을 뿌리고 우리 조국은 불패의 일선단계과 무적의 군력을 가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되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불굴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니고 력사의 온갖 시련을 과감히 이겨내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영웅적인민으로 존엄 떨치게 되었다.

비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 숭고한 애국헌신으로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통성번영의 시대를 안아오시고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으며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는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시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은 또 한번의 백두산혁명의 위인이신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성스러운 력사가 변함없이 흐르고 천만군민이 당과 사상과 뜻, 운명을 함께 하는 일심단결의 대오로 더욱 굳게 결속되었으며 우리 조국은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백두산대국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당과 조국이 걸어온 70년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승리의 전통을 이어온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으며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성스러운 백두의 대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은 백두에서 창조된 혁명신념, 혁명투지, 혁명배정으로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리기 위한 전인민적인 대진군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간고한 초행길을 헤치시며 쌓아올리신 고귀한 혁명업적이 있고 자랑스러운 승리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것으로 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견인불발의 투쟁을 벌림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조국력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자는 것을 호소하면서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돐에 즈음한 공동구호를 발표한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로력성공과로 맞이하자!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고 주체의 태양이시며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수령영생의 대기전비로 길이 빛내이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만세!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화하자!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답게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 정 피죽처럼 간직하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가자!

민족재생의 은인,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만대에 빛내어나가자!

항일대전의 위대한 승리 만세!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 수령님과 장군님의 교시는 혁명의 교과서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대로 우리 나라를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자!

모든것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식, 김정일동지식으로!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이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곳곳이 이어가자!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최강의 무기이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더욱 철철같이 다져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겁만겁의 성세를 쌓자!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자!

당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자!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

전당이 당중앙과 사상과 습결도, 발걸음도 같이하자!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칼날같은 기강을 세우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운동전으로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자!

자기 단위, 자기 지역을 당의 호소와 습결, 맥박이 높뛰는 당중앙위원회 뜨락으로 만들라!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자!

당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자!

전당이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짝 차넘치게 하자!

당사업의 주되는 힘을 인민생활향상으로!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에 멸사복무하자!

전당이 사람과의 사업에 주력하자!

어머니당의 사랑과 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라!

99%의 나쁜 점에 단 1%의 좋은 점, 망심이 있다면 대담하게 민고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라!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어길수 없는 본도로 삼라!

당일군들은 당의 군중공작방법을 체득한 인간개조와 정신력발동의 능수가 되라!

세도와 판로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자!

후방사업을 당사업의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라!

당세포들은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가 되라!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사상사업을 첫째가는 중대사로 틀어쥐고나가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체제급교양, 도덕교양에 화력을 집중하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계급투쟁의 교훈과 진리를 뼈에 새기자!
당선정일군들은 항일유격대 나팔수가 되자!

누구나 당정책을 제 집안일처럼 환히 알게!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편속포화, 명중포화를 듣게하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라!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쓸어버려라!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자!

당기앞에 다진 맹세 지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조선로동당원의 혁명적기개를 떨치라!

우리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은 제국주의침략위협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다.

모두다 당의 병진로선관철으로!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기둥, 주력군이며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주장력이다.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의화하자!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군력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이라!

인민군대는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혁명의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이 되라!

백두산혈통만을 억척같이 받들고 결사보위하는 대들보, 무쇠방패가 되라!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라!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라!

전군을 당이 가리키는 항방향으로만 총구를 내대고 곧바로 나가는 제일군위대로 만들라!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 통일단계의 선구자, 제일수호자가 되라!

전군이 진정한 동지부대, 전우부대가 되라!

오중총7련대청호쟁취운동과 군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김정은혁명강군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라!

백만 싸우면 백만 다 이기는 우리 혁명무력의 자랑스러운 승리의 전통을 더욱 빛내어나가자!

올해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5대훈련방침을 제시하신 40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4대훈련원칙을 제시하신 2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훈련도 전투다!

전군이 백두산훈련열풍으로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라!

뜻깊은 올해를 전투정치훈련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해로 되게 하라!

명사수,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 전군이 백발백중의 명사수, 명포수가 되라!

원수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용도 없게 모조리 죽탕쳐버려라!

순간도 헛눈을 팔지 말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라!
강철같은 굳기를 확립하여 인민군대를 안팎으로 멋있는 최정예혁명강군으로 만들라!

모든 지휘관들은 아전현의 지휘관, 현대전의 능수가 되라!

내대, 중대를 무적필승의 최정예전투대로, 당중앙위원회의 뜨락과 잇닿아있는 병사들의 정든 고향마을, 고향집으로 만들자!

농공사, 수산, 축산의 3대업종을 계속 세차게 일으켜 군인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하라!

인민군대 후방일군들은 항일유격대 군수판들처럼 병사들을 위하여 헌신하라!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일당백의 기상과 전투력을 남김없이 떨치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인민을 돕자!

군인가족들은 총잡은 남편들의 믿음직한 부사수가 되자!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은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칼을 날카롭게 버려라!

당과 제도, 인민을 결사보위하는 무쇠방패, 붉은 맹수가 되자!

은 사회에 군사증시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자!
로농직위군은 우리 당의 혁명적주장력이며 인민군대의 믿음직한 억척부대이다.

로농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는 실전훈련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전민항전준비를 튼튼히 갖추라!

군민협동작전으로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시키자!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민대단결의 위력, 전민항쟁의 위력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자!

언제나 병사시절 그 한모습으로 살라!
전사자가족들과 영예군인, 전쟁로병, 후방가족들을 진정을 담아 돌보아주자!

국방공업은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병기창이다.
군자리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국방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라!

우리 식의 위력한 최첨단무장장비들을 적극 개발하고 더욱 완성하라!

국방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치라!

국방공업부문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려놓으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자!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건설의 기관차이다.
과학전선이 앞장에서 사회주의승리의 포성을 울리라!

과학으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
과학연구사업은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전이다!

최첨단을 돌파하라!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실현하여 새 세기 산업혁명을 다그치라!

우리 식의 첨단과학기술위성,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올리라!

기상관측과 예보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높이라!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 위대한 당의 품이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빨리 발전하고 문명해지며 전진하는 부강조국의 전초병이 되라!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연구개발하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하라!

과학기술성공의 앞찬 열매로 황금산, 보물산을 쌓아올리라!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이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이 내세운 중요한 과업이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이며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이이다!

위대한 장군님 펼쳐주신 황금벌의 새 력사를 대대손손 빛내어나가자!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우리 나라를 쌀이 넘쳐나는 나라로 만들자!

물결야행농법,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라!
전군총적운동으로 물확보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유기농법을 널리 장려하자!
농산과 축산, 파수와 축산의 고리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라!

과일농사를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하여 파수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자!

철명아래 사과바다에서 과일향기 넘쳐나고 과일파도 물결치게 하라!

은실남새농사를 대대적으로 하라!
버섯생산을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하여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자!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식의 훌륭한 생산조직형태, 우월한 관리방법인 분조관리제를 창조하신 50돐이 되는 해이다.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라!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옮겨 적용하여 농업생산에서 은이 나게 하라!

결사관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으로 황해남도물길공사를 힘있게 다그치라!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자!

세포지구 대규모축산기지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과학축산의 봉화선이 더 많은 고기와 알, 우유를 생산하라!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라!

《바다 만국가》의 노래높이 온 나라에 사회주의 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하라!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앞선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라!

은 나라에 양어열풍이 휘몰아치게 하라!
강과 호수, 바다에서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라!

경공업의 거세찬 동풍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라!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라!

식료공장들에서 자동화, 무인화, 무군화, 무진화를 적극 다그치라!

어린이식료품생산을 늘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키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 동 구 호 —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즈음하여 —

3 번 에 서 계 속

땀이 있는 교육과 질 좋은 학용품은 우리의 귀여운 자식들에게 더 많이!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라!

단천지구에서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라!

력사적인 창성련석회의정신을 구현하여 모든 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자!

전력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나라의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자!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당창건 일흔돐까지 훌륭히 완공하라!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어랑청발전소, 레성강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라!

발전설비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력의 도중손실을 없애라!

나라의 전력관리체계를 전기절약형으로 확고히 전환시키자!

풍력과 조수력, 지열, 태양에너지 등을 적극 개발 리용하라!

탄부들이여! 석탄산의 높이이자 전력중산이며 경제강국건설의 속도이다.

석탄증산으로 당을 받들자! 화력발전소에 힘을 집중하여 화력발전소들에 질 좋은 석탄을 더 많이 보내주라!

석탄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최우선 보장하라!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은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쌍기둥이다.

성강과 강선에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라!

주철생산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라!

품위높은 철정광을 금속공장에 더 많이 보내주라! 비료이자 곧 쌀이며 사회주의이다.

홍남과 남흥에서 주체비료산을 더 높이 쌓아올리라! 대규모화학공장이 경공업원료와 건재의 국산화 실현에 적극 이바지하라!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다. 철도운수부문에서 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을 세우고 인민경제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라!

철도의 중량화, 고속화, 정보화를 다그치라!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를 하루빨리 앞당겨 끝내라!

군민협동작전으로 나라의 철도역과 철길주변을 일신시키자!

항공운수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라! 원산항을 세계적인 항으로 건설하라!

현대화에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적극 개발생산하라! 중요대상설비들을 제때에 질적으로 생산보장하라!

나라의 귀중한 지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라!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라!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와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라!

건설자들이여!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자!

주체성과 민족성, 독창성과 편리성,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라!

설계와 시공에서 선 편리성, 선 미학성, 선 후대판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라!

원예네르기, 평탄성, 특색건축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열에 의한 냉난방체계를 적극 도입하라!

설계와 시공, 건재의 3대요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결합하라!

건설에서 자기 지방, 자기 지역의 특색을 살리라! 미래과학자거리와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라!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다.

자연과의 전쟁, 산림복구전투에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서자!

사회주의애국립, 모범산림군정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라!

은 나라를 수리화, 원림화, 파수원화하자!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하라!

간석지를 대대적으로 개간하여 조국의 대지를 넓히라!

모든 강들을 애국의 강, 보배강, 락원의 강으로 만들라!

큰물과 왕가물, 태풍과 폭설에 의한 재해방지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라!

도로의 현대화, 중량화, 고속화를 다그치라! 구병명가족소대원들처럼 도로관리에 깨끗한 량심을 묻으라!

도로와 철길주변에 코스모스가 만발하게 하라!

전사회적으로 환경보호, 자연보호사업을 힘있게 벌리자!

지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을 적극 보호리용하여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를 빛내이자!

평양시를 웅장화되려하고 풍치수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더 훌륭히 꾸리자!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본보기로 하여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면시키자!

거리와 마을, 고향산천을 자기 집뜨락처럼 알뜰히 꾸리라!

화초와 지피식물을 많이 심어 생명이 없게 하라! 경제관리를 개선하는것은 경제강국건설의 절실한 요구이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자!

경제관리에서 생산자들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라!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라!

생산과 관리를 객관적경제법칙과 현대과학기술의 요구에 맞게!

경제사업에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자! 국가경제발전전략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우라!

계획작성사업에서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라!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라!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생산정상화의 동음, 사회주의 전진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라!

우리의 주체적력량과 기술에 의거하여 현대화를 실현하자!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라!

모든 단위에서 정상운영, 정상보수, 정상관리질서를 철저히 세우라!

자기 일터와 마을을 m²당으로 책임지고 주인답게 관리하라!

절약이자 곧 증산이고 애국이다. 한W의 전력, 한방울의 연유와 물, 한g의 석탄과 세멘트도 극력 절약하라!

세상이 부러워할 최고의 문명을 최대의 속도로 창조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라!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라!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밀접히 결합시켜 학생들에게 쓸모있는 지식을 배워주라!

교육사업을 중요한 국사로 내세우고 전당적, 전국가적, 전민적 사업으로 강하게 밀고나가자!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 후대들을 대바르고 건전하게 키우자!

교원들은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라!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과학기술강국화, 인재강국화를 실현하자!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을 거점으로 로동계급의 과학기술 인재를 다그치라!

체육은 나라의 국력을 시위하며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 나라를 최단기간안에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 세우자!

은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 사상대의 높이이자 조국의 높이이다.

더 많은 금메달로 선군조선의 영예를 온 세상에 빛내이라!

체육경기를 빨찌산식으로, 공격적인 전법으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자!

민족체육과 군중체육을 널리 장려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키라!

기자, 언론인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여! 새로운 출판보도혁명의 포성을 세차게 울리라!

출판보도물은 대중의 친근한 길동무, 시대의 선도자가 되라!

인쇄물에게는 철추를,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주는 사상의 미사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라!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영도를 받들자!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조기품을 적극 따라배워 창작창조활동에서 혁신을 일으키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훌륭하게 창작하라!

만화영화창작에서부터 새로운 영화혁명의 불길을 일으키라!

당정책옹위가요, 흥치나는 민요풍년으로 전진하는 대오에 열정과 광만을 더해주라!

은 나라의 예술화, 예술의 대중화를 실현하자!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일터마다 혁명열, 투쟁열이 차넘치게 하라!

정성은 사회주의보건의 속성이며 생명이다. 천리마시대 보건일군들처럼 인민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바치라!

위생방역사업과 치료예방사업을 개선하여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최대로 발양시키라!

먼거리의료봉사체제와 의학정보자료봉사망을 더욱 완비하라!

효능높은 의약품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라!

은 사회에 민족적정서와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자!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높은 수준에서 확립하자!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적극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자!

인민정권은 강성국가건설의 강력한 정치적무기이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이다.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우리의 인민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자!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고도로 발양시켜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자!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과 혜택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가닿게 하라!

인민생활을 부단히 향상시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높이 울리게 하라!

부모없는 아이들과 홀로 사는 늙은이들, 장애자들을 돌보아주는 미풍이 온 나라 대가정의 가풍으로 되게 하자!

사회주의범무생활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자!

모두다 숭고한 공민적의무감을 지니고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자!

사법검찰기관들은 수형보위, 정책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라!

준법교육과 법적투쟁을 강화하여 강성국가건설을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라!

법기관 일군들은 불순적대분자들에게는 무서운 호랑이가 되고 인민들에게는 참된 총부, 심부름꾼이 되라!

법집행사업은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바로하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굳게 다지라!

군중에게 의거하여 계급투쟁을 힘있게 벌리라! 혁명적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지키라!

청년들이 들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사회주의강성 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양양이 일어난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영웅이 되자!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 투사가 되자!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측부대의 영웅적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떨치라!

《전진행렬차》 노래높이 선군혁명의 제1선참호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오늘의 리수복, 조군실이 되라!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처럼 청춘시절을 빛나게 살라!

청년동맹을 조직력과 단결력, 전투력이 강한 쇠소리 나는 전투대로 꾸리라!

근로단체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고 동맹원들의 애국열의를 최대로 분출시키라!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전개하며 온 나라에 사회주의경쟁열풍이 휘몰아치게 하라!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총진군은 세계를 내다보며 비약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요구한다.

우리 당의 혁명방식, 투쟁기풍, 창조본때로 새로운 시대정신, 조선속도를 창조해나가자!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단숨에!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의 투쟁정신과 결사판권의 기풍, 간진 일출세를 따라배우자!

명도업적단위들이 당정책판철의 본보기, 표본이 되라!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평양시가 모든 면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라!

모든 부문에서 전향단위를 창조하고 현대적혁신을 일으키자!

도식과 경계를 풀고 끊임없이 새것을! 남들이 열결음, 백걸음 걸을 때 일행천리하라!

자기 땅에 밭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어나가자! 천지운활유공장처럼 당정책판철을 모든 면에서 정확히!

책을 가까이하면 할수록 나라의 부흥이 빨라지고 책을 멀리하면 할수록 나라의 부흥이 떠진다.

은 사회에 빨찌산식학습기풍을 세우자! 소방대식, 오분열도식, 캄빠니야식일본새를 철저히 극복하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함께라면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영광이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전진한다는 숭고한 혁명관, 미래관을 지니라!

은 나라에 《세상에 부럼없으려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일군들의 어깨우에 당정책의 운명이 놓여있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라!

당정책의 열렬한 신봉자, 결사판철의 철저한 투사가 되라!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혁명군대의 지휘성원들처럼 전투조직과 지휘를 화신적으로 박력있게 하라!

현장지도, 현장정치사업을 강화하라! 작전도 지휘도 총화도 립체적으로, 전격적으로!

뺨을 째어서라도 인민생활문제를 풀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라!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라! 생산수자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다!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 본위주의를 불사르라!

장장 70년간 지속되어온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 내는것은 온 겨레의 숙원이며 민족회대의 결박한 과업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필생의 념원을 받들어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기어 일떠세우자!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선언들을 민족공동의 통일헌장, 통일대강으로 높이 들고나가자!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가자!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자!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이 되는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자!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겨레가 떨쳐나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자!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의 군사적도발과 전쟁연습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민족적불행과 전쟁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총열기해나서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적리념을 확고히 견지하자!

대외관계에서 혁명적원칙과 자주적대를 억척같이 세워나가자!

나라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자!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여!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향한 장엄한 총공격전의 포성은 울렸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항일혁명선렬들의 웨침이 만만시련을 박차고 오직 주체의 한길로만 곧바로 매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기상과 투지를 더욱 백배 해주고 전진하는 대오에 총성과 열정의 맥동을 더해 주고있다.

백두의 천출유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따라 천만군민이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이 거세찬 진군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가는 우리 혁명대오의 진두에는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태양기가 휘날릴것이며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승리로 고부추동할것이다.

모두다 승리의 경축광장을 향하여 앞으로! 항일대전의 위대한 승리, 조국해방 일흔돐 만세!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 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6.15 통일시대를 펼쳐신 탁월한 애국의 령도

조국해방 일흔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토론회를 열어 나가기 위한 투쟁의 앞길에 6.15의 기치가 힘차게 나뉘어 갔다. 6.15는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물리치며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기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추동해주는 위대한 승리의 기치이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 온 민족의 가슴마디에는 송고한 애국의 의지와 대용단, 탁월한 령도력으로 감격적인 6.15 통일시대를 펼쳐주시고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을 하나로 묶어내며 자주통일을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에 불려넣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게 대한 합당한 경모와 찬사를 드려올 수 있는 것이 차남인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 령도자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시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하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선 우리 민족끼리의 6.15 통일시대를 열어 놓으시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고귀한 밀천을 마련하시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끊임 없는 전횡도발책동을 짓부셔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시었습니다.』

6.15 통일시대는 조국통일운동에서 뚜렷이 아로새겨진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민족의 조국통일투쟁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탁월한 사상과 령도자 우리 민족끼리의 6.15 통일시대를 열어놓으셨다는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할 불멸의 공적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밝은 전망을 펼친 6.15 통일시대의 개척자, 탁월한 령도자이다.

민족운명개척의 새시대는 저절로 마련되는 것이 아니다.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탁월한 위인에 의하여 시대의 리

정표가 제시되고 그의 진전이 이룩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6.15 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신것은 자주통일시대의 탄생을 알린 역사적사건이었다.

2000년대를 눈앞에 두고 변화되는 정세와 통일운동발전의 요구를 꿰뚫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애국애족의 결단과 의지로 주체 89(2000)년 6월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였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양을 방문한 남측인문사대교단을 비롯한 각계각층 동포들을 몸소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송고한 애국의 뜻을 심어주시였으며 6.15 공동선언의 리행을 적극 추동하시였다. 하여 북남상급회담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력의 계속 이어지고 각계층의 대량교류가 활발해지는 속에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조국의 품에 안기는 사변도 일어났다. 6.15 공동선언에 의하여 창조되는 감격적인 사변들을 목격하며 장조선과 해외동포들은 《자주의 시대, 통일의 시대가 열렸다.》, 《공동선언이 화해와 통일을 안아오고있다.》고 격경을 금지 못하시었다.

비밀한 통찰력으로 시대의 앞길을 밝히시는 정확한 리정표를 제시하시고 애국의 리념으로 온 겨레를 거족적인 통일운동에 힘있게 불려넣으신 바로

여기에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품목과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6.15의 기치 밑에 민족단합, 통일운동강화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으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우리 민족끼리를 시대의 리념으로 내세우시고 그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바탕으로 강화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북남대화화 협력으로 민족적유대와 혈연의 정을 두터이 하도록 하시는데 애국애족의 광폭정치로 온 겨레를 한몸에 안아 통일인의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조국통일을 지향해나신단과 과거분문의 원칙에서 함께 손잡고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민족애는 해내외의 온 겨레가 6.15의 대화에 과감히 뛰어 들게 한 원동력이였다.

북과 남이 슬기와 힘을 합쳐 온갖 도전을 헤쳐나가는 과정에 불신과 대결의 감정이 점차 해소되고 단합의 기운이 높아갔으며 남조선에서 만민자주, 민족공동체를 위한 활동이 강화되어 전체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가 형성되였다. 민족단합의 거대한 열풍이 불어치는 속에 6.15 민족공동위원회와 같은 전민족적인 통일운동기구가 출현하면서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단체들과 동포들의 적극적인 편대연합으로 조국통일운동은 더욱 활력있게 벌어졌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보다 우대 한 구상을 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주체 96(2007)년 10월 도 한차례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진행하시고 6.15 공동선언의 실천 강령인 10.4 선언을 채택하시였으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확고한 전망을 펼쳐시였다. 역사적인 10.4 선언을 마련하시어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민족끼리의 위력으로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면서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할수 있는 근본담보를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탁월한 선군정치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짓부셔와 조국통일운동을 끊임없는 양양으로 이끄시였다.

6.15 통일시대의 전진은 순탄치 않았다. 미국은 6.15 통일시대에 대해 《미국의 리해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비명을 울리면서 남조선당국이 우리와 손을 잡지 못하게 압박하는 한편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핵공격대상으로 공식 지정하고 핵전쟁책동에 광분하였다. 남조선보수세력도 미국의 반 6.15 책동에 추종하여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리념을 부정하고 《피주기》나 뭐니 하고 떠들며 북남 대화와 협력을 반대해나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정력적인 선군혁명명도로 우리 공화국을 자주의 성세로 더욱 굳건히 다지고 무적의 군력으로 미제호전광들의 침략기도를 꺾을결을 짓부셔버리시였다.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주권국가들을 마음대로 짓밟으며 남강도적인 전횡을 일삼았다는 속에서 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길이 터지지 않은것은 우리 공화국의 선군정치와 위력하기때문이었다. 선군의 믿음직한 보호가 있어 우리 겨레는 미국의 모험적인 침략전쟁책동속에서도 화해와 단합의 합성을 높이 올려며 6.15 통일시대를 힘차게 떠밀어올 수 있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대북압살책동으로 핵전쟁일진 정세를 민족대단합투쟁으로 승수시켰다는 바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라는 격찬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는것은 위대한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정명 6.15 통일시대의 갈피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애국헌신적의 자유가 뜨겁게 깃들여있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자 자주통일의 대토론회를 힘차게 열어 나갔었다.

은 정 철

패권주의가 군비경쟁을 불러온다

얼마전 워싱턴의 신아메리카안보센터에서 그 무슨 강연이라는것이 있었다.

여기서 미국방성 부장관이 로씨야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여 나토성원국들이 신형무기개발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격려했었다.

그는 백엔지에는 지구상에 하나의 적밖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은 여러 잠재적적수들과 충돌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위기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수 있도록 무력강화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미국의 고위관리가 로씨야와 중국을 《적수》로 지명하고 로물적으로 군비확장을 떠벌린것은 그 나라들과의 대결을 정식 선언한것이나 같다. 더우기 세계적범위에서 강행하고있는 무력증강책동이 로씨야나 중국을 겨냥한것이 아니라라는 주장이 한참 기간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그것을 스스로 증명한다면 된다.

지금까지 미국은 로씨야의 국경연선으로 바짝 접근하고있는 나토무력과 유럽미사일방위체계를 순수 동맹국들의 《방위》를 위한것이라고 우겼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무력증강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선전하였다.

미국이 우리의 의지도 없는 그 무슨 《위협》설을 항상 타우에 올려놓고있는것은 무력증강의 본심을 《북조선위협》설로 가리우며 주한미국들의 경제감을 낮추기위해 있는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어떤 주한미국들의 군사력강화문제에 로씨야와 중국에 대처해야 한다고 공언함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비롯한 세계도처에 무력을 증강하고있는 근본목적이 국제무대에서 군사적패권을 쥐기 위한다. 미는 이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미국이 로씨야와 중국을 군사적으로 억제하려는 본심을 로물적으로 드러낸것은 저들의 패권적지위가 허물어지고 세계제패야망이 물거품으로 떨어지고있는데 대한 극도의 불안과 초조감의 표현이다.

최근년간 국제무대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사태를 비롯한 여러 문제거리들은 미국이 좌지우지하던 세계질서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미국도 이러한 현실을 모르지 않으며 그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있다.

미국무성 부장관의 말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그는 로씨야와 중국이 군사력대화를 다치고 있어 미군의 《군사기술적우성이 점차 훼손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의 국방예산이 지난 10년 동안 거의 배로 늘었다는 증가세를 유지하고있다는데, 로씨야가 세계적인 규모의 작전을 현저히 확대하고있다는데 뭐니 하고 걸고들었다.

주한미국들의 존재감이 계속 두드러지고있는 대신 저들은 점점 무기력해지고있는 현존국제관계구도의 변화에 대한 불안과 짜증이 섞인 말이고 해야 할것이다.

미국이 로씨야와 중국을 군사적으로 억제하려는 본심을 로물적으로 드러낸것은 또한 그 나라들과의 힘의 대결정책을 더는 감출수 없게 된것과 관련되어있다.

군사적우세를 차지하기 위한 로. 증. 미의 치열한 경쟁은 최근 극도에 달하고있다.

로씨야는 올해에 4개의 전략미사일탄도를 증강하고 핵미사일함 2척을 건조하며 80%의 전투기들이 전투태세에 진입할것이라고 하고있다.

중국 역시 최근 미군이 사용하는 무인기와 성능이 비슷한 고공무인항공기를 공개하는 등 군사적경쟁력을 높이고있다.

이것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세력범위를 더욱 좁혀놓고있다.

군비경쟁이 본격화된 현시점에서 미국이 아무리 자기의 범죄적목적을 두고 아님보살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자기기만에 불과하다.

결국 으르렁거리기 좋아하고 심기가 뒤떨리면 승냥이의 본성을 드러내는 미국이 본분을 잃은 것이다.

로씨야와 중국과의 군사적대결기도를 전면에서 드러낸 미국은 군사력증강에 힘을 쓰고 말라붙을 것이다. 로씨야와 중국 역시 자기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다. 힘의 대결은 더욱 첨예해질것이다.

리 철 혁

사회적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협조
영국과 튀니지가 4월 테로방지분야에서 쌍무협정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3일 우간다와 남부수단 등 두 나라사이의 군사적협조를 강화할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파 약 압 수
물도마경찰이 3일 나라의 국경지역에서 반마약작전을 진행하였다.

작전결과 소형배를 리용하여 마약을 운반하던 5명의 범법자가 체포되고 100kg의 마약이 압수되었다.

새 고속도로 개통
벨남의 남부지역에서 8일 새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도로망건설계획에 따라 완공되어 고속도로의 길이는 55km

에 달한다.

화 소 수 출
케니아에서 화소수출을 늘이고있다.

나라이에서는 유류탱크의 부당한 판매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11만 4762톤의 꽃을 수출하였다.

이것은 그 전년에 비해 1만 983톤 더 늘어난것으로 된다. 6월 이 나라 통계국이 밝혔다.

경제장성목표
인도네시아에서 올해에 경제성장률을 5.7%로 끌어올릴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5월 이 나라 대통령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이란에서 송유관 건설

서방의 재채를 물리치며 전진하는 이란

지난 11일은 이란인민에게 있어서 뜻깊은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36년전 이란인민은 친미적인 파호라비왕제정권을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혁명승리후 이란인민은 반제국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전위물을 수호하며 자기자신택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이것을 달가와하지 않은 제국주의세력은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란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내정간섭과 침략, 파호라비왕제정권을 물리치고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혁명승리의 정신은 오늘도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이란은 자기 나라의 평화적 행활동을 핵무기개발로 몰아붙이며 경제체제와 군사적위협을 가해오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책동에 단호히 맞서나가고있다.

이란은 평화적기술개발을 나라의 국력을 튼튼히 할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국

제무대에서 자기의 림장과 권리를 팔까지 고수해나갈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원유공급은 이란경제의 기본기둥의 하나이다.

이란은 서방의 가혹한 제재속에서라도 원유탐사 및 채취설비를 자체로 제작할수 있는 자립적인 원유공업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란정부는 경제의 다각화에 상당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란은 천연가스생산량을 배로 늘일 목표를 내세우고있으며 2개의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할것도 계획하고있다.

정부는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페르시아만에 어느 한 성과물들을 편철하는 다리를 건설할것도 계획하고있다고 한다.

이란정부는 철도운수발전을 위한 8개년계획을 작성하고 3실현에도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란북부의 어느 한 주에 세언제가 건설되어 많은 농경지들이 물을 얻을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란은 자체의 국방력강화에 더 큰 힘을 넣고있다. 강위력한 자위의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

의 안정과 번영발전이 있다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로물화되는 오늘날의 세계가 새겨진 피의 교훈이다.

이란정부는 민족경제에 철저히 의거한 무장장비의 국산화,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지난해에만도 어뢰와 미사일, 무인기 등 새로운 국내산무기들을 개발생산하였다. 그것을 도입하여 일선의 분위기속에서 군사연습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이것은 적대세력들의 거두되는 전쟁위협과 간섭책동을 자체의 힘으로 짓부셔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이란정부와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의 표시이다.

이란은 대외적으로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조종 산공과 협조의 원리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우리 인민은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사회건설을 위한 이란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며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김 국 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납입 반대

체코의 무장이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납입을 반대하는 자기 나라의 림장을 표명하였다.

최근 우크라이나대통령이 무기를 대출것을 나토성원국들에 요구해나선것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에 위험한 처사로 락인 하였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납입이 경제발전이 부진적임을 주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서방이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체코국민방수도 자기 나라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납입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역사외곡책동 규탄

미국의 력사학자 19명이 최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일본의 력사외곡책동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일본당국이 성노예범죄와 관련한 미국의 력사외곡책동을 규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한 아베정권이 성노예범죄를 역사에 남기고 중언자들의 이익을 서술하는 출판사나 학자단체에 압력을 가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유엔인권기구의 정치화된 결의를 배격

로씨야의무성 공식대변인 알렉산드르 루카비치 기자회견에서 유엔인권기구의 정치화된 결의를 단호히 배격하는 림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유엔인권리사회를 비롯한 여러 기구들에서 일부 나라들에 의해 인권문제가 국제무대를 약화시키는 논리로 전향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권옹호』라는 미사령구는 철면피하게도 국가정권변복을 비롯하여 분쟁과 충돌문제를 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근거로 리용되고있다.

이러한 리빙상정적 태도는 유엔총회와 유엔인권리사회에서 나타나고있다. 우리는 인권문제를 오직 국가들사이의 건설적인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최근 유엔인권리사회 특별보고관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선 정권의 지도부를 전복할것을 선동하는 교만한 발언을 하였다.

우리는 이것이 유엔인권리사회의 특별절차행동규정과 유엔

이란이슬람교혁명승리 36돐에 즈음하여 이란혁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이란이슬람교혁명승리 36돐에 즈음하여 만수르 차보비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1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수유무상, 조선이런친선협회 위원장인 정영수 총동장, 박근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사들, 국제기구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만수르 차보비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1979년 이란에서 왕정을 반대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전민적혁명이 승리함을 이룩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웃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대방면적인 교류를 강화해나가고있는 이란의 대외정책에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지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일행의 이란방문이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말하였다.

김정은원수각하의 특별한 관심속에 이란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가 강화발전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리수유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혁명승리후 지난 36년간 이란인민이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발과 간섭을 물리치면서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림시대리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학교에 모인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조선중앙통신】

몽골대사관 성원들과 친선모임

이들은 배우고 통부를 비롯한 다채로운 체육경기를 진행하였다. 경기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두 나라사이의 협조와 관련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어히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계도처에서 회오리치는 반미열풍

미국은 자체의 힘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보건과 교육분야를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노력에 제동을 걸려고 준동하고있다.

연설내용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저들의 노예로 만들려는 미국의 책동은 배격당하고있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최근 약화되고있는 저들의 처지를 만회하기 위해 온갖 모략을 다 꾸미고있다.

특히 이 지역 나라들의 제도 진보를 슬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하고있다.

최근에 드러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정면모사실 하나만 놓고보면, 베네수엘라주제 미국외교관들은 이 나라의 군부리들과 접촉하면서 조국을 배반하도록 부추기고 사회정치활동가들과 기업가 등을 매수하여 정변을 선동하려 하였다.

베네수엘라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이것을 베네수엘라에 대한 오바마행정부의 악랄한 음모계획의 일환으로 략인하였다. 그는 이는 한 연설에서 《오바마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세계도처에서 회오리치는 반미열풍

미국은 자체의 힘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보건과 교육분야를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노력에 제동을 걸려고 준동하고있다.

연설내용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저들의 노예로 만들려는 미국의 책동은 배격당하고있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최근 약화되고있는 저들의 처지를 만회하기 위해 온갖 모략을 다 꾸미고있다.

특히 이 지역 나라들의 제도 진보를 슬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하고있다.

최근에 드러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정면모사실 하나만 놓고보면, 베네수엘라주제 미국외교관들은 이 나라의 군부리들과 접촉하면서 조국을 배반하도록 부추기고 사회정치활동가들과 기업가 등을 매수하여 정변을 선동하려 하였다.

베네수엘라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이것을 베네수엘라에 대한 오바마행정부의 악랄한 음모계획의 일환으로 략인하였다. 그는 이는 한 연설에서 《오바마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세계도처에서 회오리치는 반미열풍

미국은 자체의 힘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보건과 교육분야를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노력에 제동을 걸려고 준동하고있다.

연설내용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저들의 노예로 만들려는 미국의 책동은 배격당하고있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최근 약화되고있는 저들의 처지를 만회하기 위해 온갖 모략을 다 꾸미고있다.

특히 이 지역 나라들의 제도 진보를 슬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하고있다.

최근에 드러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정면모사실 하나만 놓고보면, 베네수엘라주제 미국외교관들은 이 나라의 군부리들과 접촉하면서 조국을 배반하도록 부추기고 사회정치활동가들과 기업가 등을 매수하여 정변을 선동하려 하였다.

베네수엘라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이것을 베네수엘라에 대한 오바마행정부의 악랄한 음모계획의 일환으로 략인하였다. 그는 이는 한 연설에서 《오바마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세계도처에서 회오리치는 반미열풍

미국은 자체의 힘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보건과 교육분야를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노력에 제동을 걸려고 준동하고있다.

연설내용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저들의 노예로 만들려는 미국의 책동은 배격당하고있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최근 약화되고있는 저들의 처지를 만회하기 위해 온갖 모략을 다 꾸미고있다.

특히 이 지역 나라들의 제도 진보를 슬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하고있다.

최근에 드러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정면모사실 하나만 놓고보면, 베네수엘라주제 미국외교관들은 이 나라의 군부리들과 접촉하면서 조국을 배반하도록 부추기고 사회정치활동가들과 기업가 등을 매수하여 정변을 선동하려 하였다.

베네수엘라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이것을 베네수엘라에 대한 오바마행정부의 악랄한 음모계획의 일환으로 략인하였다. 그는 이는 한 연설에서 《오바마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